

지성·수행·대중불교 서원... 불교계에 새 바람



1967년 봉은사에서 열린 제4차 전국 대의원대회, 사진 앞줄 왼쪽부터 덕산 이한상 거사, 서문각 서울법대학장(법불회 지도교수), 광덕 스님



1963년 법주사 1차 수련대회 후, 오른쪽부터 지하 스님, 청담 스님, 이한상 거사, 왼쪽 두번째 흥도 스님, 혜성 스님



1966년 대불련 구도부원이 정진한 김홍사에서, 오른쪽부터 박성배 교수, 이한상 거사, 송산 스님, 성철 스님, 서경주 교수

① 1960년대 - 전국적인 대학생불교운동의 태동기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이하 대불련)가 2013년 9월 1일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해방과 민주화 등 역사의 흐름 속에 대불련은 청년불교의 대표단체로 80년대 대중불교운동, 90년대 재가불교운동, 2000년대 참여불교운동 등을 이끌었다.

하지만 현재 대불련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취업난으로 인한 교내 학업경쟁으로 이미 많은 대학에서 법회가 실종된 상태. 또 학생들을 지도하는 지도교수와 지도법사 등의 관심이 줄어들며 학교와 지역을 불교계와 있는 네트워크가 무너졌다. 이런 시기 대불련 50주년을 앞두고 각 시기 상황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학생 불교운동의 흐름을 짚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본다.

며 불교 중흥을 발원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있었던 대학생 불교활동을 조직적인 연합회 활동으로 발전시키는 일대의 사건이었다.

청년불교운동이 불교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한 이들은 9월 1일 동국대 중앙당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대불련을 정식 창립했다.

대불련은 창립의 주요 이념으로 '지성' '수행' '민족' '대중' 불교의 가치를 내걸었으며 동시에 전국 대학생 불교연합회 조직, 사회봉사 및 국민계몽, 민족문화재 보호, 국제교류 등을 사업계획으로 수립했다. 대불련은 주1회 법회, 정기수련회를 진행했으며 매년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사상강연회를 통해 젊은 불자들을 대상으로 포교를 펼쳤다.

당시에도 젊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데서 더 나가 단체활동에 나선 것은 생소하고도 신선한 충격이었다.

가가 제정됐다. 1967년 4월 23일에는 봉은사에서 제1차 명예회원 추대식을 개최해 탄허 행원 능가 광덕 스님을 비롯해 서문각 이기영 김경두 홍정식 이중의 서경주 이한상 등 14명을 명예회원으로 추대했다.

같은 해에는 대불련 출신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학사불교회가 창립됐다. 10월 3일 김윤권 초대회장을 비롯해 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조계사 학생회관에서 학사불교회 발기인총회를 열고 학사불교회를 창립했다. 초기지만 대외적인 행보도 가속화돼 5월에는 최동수 명예회원이 대불련 대표로 세

대학 불교부 모여 1963년 창립 당대 선지식·교수들 지도에 앞장 군승제 도입·창가학회 규탄 주도

계불청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대불련은 1965년 제2차 전국대의원 총회를 계기로 4월 10일 창가학회(승단을 부정하는 재가자 중심의 일본 신종불교단. 현 SGI) 규탄대회를 조계사에서 여는 등 대외 행보에도 나섰다. 5월 부처님오신날에는 불교인식 여론조사 및 각 주요기관 자비등 점등, 제1회 제등행렬 등에 주도적인 활동을 펼쳤다. 5월 21~25일에는 대구 청구대 불교부 주최 하에 한국 현대화와 종교인의 사명을 주제로 대중교제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당시 15개 대학이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대학생 불자로서 대불련이 불교계에 남긴

족적은 군승제 도입에서 드러난다. 군포교가 발돋움하던 시기 10여 년 전 이승만 정부 당시 도입된 군복에 비해 군승제 도입은 미진한 상태였다. 이런 담보상대는 당국의 무성의와 타종교 방해로 인한 요인이 컸다.

1967년 3월 19일 봉은사에서 열린 제4차 전국대의원 총회에서 당시 불교계 요구사항인 군승제도 실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대불련 대표들은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예비위를 거쳐 전국 각 대학의 목소리를 수렴해 4월 11일 군승제도 추진위를 결성하고 군승제도 실시를 재차 촉구했다. 이어 17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회의를 통해 결의문을 작성했다.

4월 18일 조계사에서 500여 청년불자들이 군승제 추진 촉구대회를 여는 가운데 이무용 회장을 비롯해 김동길 사무장 등 대불련 대표들은 국방부 대표인 인사국장 정승화 소장을 만나 불교계 요구를 전달했다.

정 소장은 4월 30일까지 군종위원 임명 및 불교대표 2명을 군승으로 임명하기로 하고 군승준비위를 5월 31일까지 국방부에 설치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구체적인 준비단계를 거쳐 1968년 11월 30일 5명이 최초의 군승으로 임명됐다.

대불련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되자 전국 각 대학에서 불교학생회가 불같이 일어났다.

기존 동국대·고려대 등 불교학생회에 이어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를 통합한 서울대 총불교학생회가 1968년 11월 8일 창립됐으며 성곡관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에서 불교학생회를 창립했다.

"젊은 불자 양성 시급합니다"

명호근 대불련 총동문화 총재

"젊은 불자 양성에 한국 불교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윤제철, 이하 대불련)가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젊은 불자 육성 발원대회를 통한 청년불교 진흥에 본격 나선다.

대불련은 2월 18일 오후 3시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젊은불자육성발원대회를 개최한다.

명호근 대불련 총동문화 총재(사진)는 대불련 50주년과 젊은불자육성발원대회를 앞두고 청년불교 활성화에 대한 불자들의 애정어린 관심을 당부했다.

명호근 총재는 "불교 전체가 예전보다 침체가 돼 있다고 본다. 특히 젊은 불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더 이상 이런 현실을 방치 할 수 없기 때문에 젊은 불자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불련 총동문화는 2009년부터 대학생 불자들에 대한 장학사업과 군부대 범당 건립 및 군포교 지원사업을 벌여왔다.

장학사업으로는 지난 3년간 60여 대학생 불자와 불교학생회에 7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군포교사업으로는 3개 군부대에 2억 6000만원 규모의 범당불사를 비롯해 20여 군법당 법회를 주관했다.

대불련 총동문화는 젊은 불자들에게 대한 포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불교회관 마련을 위한 100억 규모의 '젊은불자육성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2012년 30억원의 기금을 모금할 예정이다.

명호근 총재는 "창립 당시에 비해 학생 수가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역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70~80년에는 1만명을 상회하는 수가 대불련 법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창립 초기의 원력으로 다시금 일어날 시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젊은불자육성대회는 3부에 걸쳐 진행된다. 1부 행사에서는 '왜 젊은불자에게 기대하는가?'를 주제로

창립 때 보다 회원 수 줄어 취업난으로 총체적 위기 회관 건립, 100억 모연 발원 2월 젊은 불자 육성대회

로 대불련 학생들의 국악연주와 율동과 함께 동문화 주요활동 및 젊은불자 육성 성과보고가 이어지며 공로자 및 후원자에 대한 감사의 시간도 마련됐다.

2부 행사에서는 "당신을 보았습니까" 만해시 낭송을 시작으로 젊은불자 육성 사업계획이 보고되고 젊은불자 육성을 위한 현장 기부약정식이 개최된다.

3부에서는 대불련 동문들의 성약과 연주 등과 대불련 동문들의 젊은 불자 육성불사를 위한 서원과 다짐의 시간이 진행된다.

이석우 대불련 총동문화 사무총장은 "대학가에서 취업난으로 인해 불교 신생활동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불련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모인 기금은 대학생 불자 장학금 및 군포교 진흥, 회관 건립을 위해 사용된다"며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02)720-1963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햇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2012년형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휘나햇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좌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하잖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맑아 함께 배출되기에 문맥(체온) 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 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 체질에 따라 면역력이 8~10배까지 는 휘나햇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 통하여 많은 체험 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햇은 30여종 광물질 (특허 획득 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미전기발열체 및 그 제조방법) 특수 제작한 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렘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렘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영양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증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부원출판사 | 감성적 지음 | 값 5,000원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도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옷나무 진액 참옷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옷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옷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좋다

▶ 옷에도 공함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해매던 사람이 지하 250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옷을 만들었습니다.

▶ 옷에 대한 슬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옷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옷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